



창조과학회 대구지부 월간소식지

창 조

발행일/2006년 6월 5일 (월)

발행인/전창진 편집/길소희

주 소/(701-825)대구 동구 신천3동 147-1

전 화/0502-365-0001, 053-743-6058

홈페이지/<http://creation21.org>

I 이달의 소식

1. 모임 안내

1쪽

II 내용

- | | |
|---|-----|
| 1. Creation (14) 재생되는 갈비뼈 - 이종현 역 | 2쪽 |
| 2. IMPACT (29) 창세기 대홍수 저서의 역사와 영향 - 길소희 역 | 4쪽 |
| 3. 특별기고 종교와 과학의 만남 - 신동수 | 9쪽 |
| 4. 참 아름다워라! (14) 성경 대단해요! - 서종학 | 11쪽 |

인 사 말

살롱!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과 또한 우리의 참 아버지이신 창조주 하나님께 더욱 더 깊은 감사를 전해야겠습니다.

황우석 사태에서 분명하게 드러났듯이 이 세대는 과학과 윤리가 복잡하게 얽혀 들어가고, 교회와 사회가 점점 혼합되는 위기의 시대입니다.

창조과학은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무신론적 진화론의 허울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창조의 진리와 창조의 목적을 더욱 분명하게 알림으로써,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 그 사명을 감당했듯이, 오늘날의 시대적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 한국창조과학회 대구지부 연구위원 권진혁 올림



1. 정기모임 안내

창조과학회 대구지부에서는 정기 스터디모임(1, 3째주 목요일)이 있습니다. 이 모임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과학 자료를 발굴하고,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해 보다 전문성 있는 부분에 대해 알아보며, 상호교제를 통해 사랑과 풍성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음 모임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시: 2006년 5월 18일 목요일 오후 7시 (다음 모임 : 6월 1일)

장소: 창조과학회 대구지부 사무실 동일교회 세계복음센터 103호 ☎ (053) 743-6058

내용: '창조설계의 비밀' 10장 - 옥봉흠 ('창조설계의 비밀' 11장 - 이종현)



재생되는 갈비뼈

아담, 그리고 그의 없어진 갈비뼈

연료를 가득 적재한 탱크차와 고속도로의 제한 최고 속도로¹⁾ 정면충돌한 경험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지 않다. 그렇지만, 놀랍게도 나는 거기서 살아났다 -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위한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다.²⁾

병원에 있었던 5개월 보름 동안, 그리고 그 이후 수년간, 특히 얼굴 뼈 등을 포함하여 신체 여러 부분을 개조하기 위한 수술을 여러 번 받았다.³⁾

이들 수술에서 때로는 이식을 위하여 내 자신의 뼈를 사용했다. 나는 성형외과 의사가 항상 내 흉곽의 오른쪽으로 가서, 수평으로 난 흉터 꼭 그 자리를 통해서만, 수술을 위한 뼈를 취하는 것을 알았다. 어느 날 나는 그에게 ‘왜 뼈가 바닥나지 않는지’를 물었다. 그는 나를 우두커니 바라보더니, 그와 그의 팀은 매번 갈비뼈 전체를 끄집어낸다고 설명했다. ‘우리는 골막은 손상되지 않은 채로 남겨둡니다. 그러면 보통의 경우 갈비뼈는 다시 그 자리에 자라납니다.’

나는 가정의(家庭醫)의 훈련을 받고 시무도 했지만 새롭게 흥미를 갖게 되었다. 전에는 이것을 전혀 몰랐었다. 골막(이 단어의 문자적 의미는 ‘뼈의 주변’이라는 뜻이다)이란 모든 뼈를 감싸는 막이다. 예를 들면, 양고기 다리를 삶아먹을 때 이빨 사이에 무언가 끼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골막에는 새로운 뼈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세포가 들어 있다. 특히 젊은 사람에게 있어서, ‘갈비뼈의 골막은 다른 어떤 뼈보다도 더욱 뼈를 재생시키는 굉장한 능력을 갖고 있다’.⁴⁾

흉부외과에서는 갈비뼈를 제거하는 일이 흔하다. 그러면 대개 이들은 전부 혹은 부분적으로 다시 자라난다. 재생되는 양은 갈비뼈를 제거할 때 얼마만큼 조심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 골막이 가능한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도록 잘 ‘벗겨내야’ 한다. 갈비뼈가 그러한 재생에 대한 이상적인 위치가 되는 주 이유는 거기 붙어있는 늑간(肋間)의 근육이 피의 공급이 잘 되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의사가 처음에 내게 이 이야기를 했을 때, 나에게 즉시 떠오른 생각은 ‘와, 정말 멋지다. 아담은 결함을 가진 채로 돌아다닌 것이 아니구나!’이었다. 창세기 2:21에 하와의 창조에 관하여 이렇게 적혀 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놀랍게도, 일부 기독교인들은 성인이 되고 나서도, 남자가 여자보다 갈비뼈가 하나 적다고 믿고 있다. 일부 반(反)-창조론자들은, 남자에게는 잃어버린 갈비뼈가 없다는 사실을 사용하여 문자 그대로의 창세기를 비웃었다.

내가 사고를 당하기 수년 전에는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다음과 같은 대답을 하곤 했다: ‘만약 당신의 아버지가 원형 톱에 손가락을 잃었다면, 그의 모든 자녀들도 역시 손가락이 하나 모자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딸들은 괜찮고 그의 모든 아들들만? 물론 아닙니다.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전달되는 DNA 명령은 글씨와 같은 암호의 형태로 들어있는데, 갈비뼈(혹은 손가락) 하나를 제거한다고 해서 그 암호화된 명령을 변화시키지 않으므로, 모든 자손은 갈비뼈(혹은 손가락)를 전부 갖게 됩니다.’

그런데 위의 모든 내용이 지극히 당연하고 꼭 들어맞지만, 갈비뼈가 다시 자라난다는 정보는 새롭고도 매력적인 차원을 덧붙여 준다. 하나님은 갈비뼈를 골막과 함께 설계하셨다. 그분은 오늘날에 갈비뼈가 다시 자라나듯이, 갈비뼈를 어떻게 제거하면 나중에 다시 자라나는지를 알고 계셨다 - 특별한 종류의 기적이 필요하지 않았다.⁵⁾

아담은 그의 흉곽 안에 결합 부분을 한때 가졌을 뿐 영구적으로 가진 것이 아니며, 그의 생애의 수백 년 동안 당신과 내가 오늘날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수의 갈비뼈를 가지고 있었다.

각 주

1. 1986년 당시 충돌속도의 합은 시속 약 180km(112miles)이었다.
2. 뿐만 아니라 그 당시 11살이었던 내 딸 Lisa는 거의 상처를 입지 않고 기적적으로 탈출하였다.
3.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서, 나는 전신마취를 하는 수술을 55번이나 받았다(대다수의 경우 갈비뼈 제거를 포함하지 않음)
4. 성형외과 의사 David Pennington, 개인 서신, 5월 7일, 1999.
5. 물론, 진짜 특별한 기적은 살과 뼈로부터 하와를 만드신 것이다. 왜 이런 방법을 택하셨을까? 왜 아담처럼 흙이나 혹은 단순한 요소로부터 직접 만들지 않으셨을까? 우리 모두는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구속받을 수 있다(고전 15:45). 따라서 하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가 아담의 후손이라는 사실은 중요한 것이다.

(Carl Wieland, Creation ex nihilo, Vol. 21, No. 4, 1999) **참조**

창세기 대홍수 저서의 역사와 영향

(The History and Impact of the Book "The Genesis Flood")

하나님의 자비로운 섭리(providence)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헨리 모리스를 1953년 9월에 ‘최근 창조와 전 지구적 홍수’라는 제목으로 미국과학자 연맹(American Scientific Affiliation) 모임에서 논문을 발표하기 위해서 (내가 구약학 교수로 있는) 그레이스 신학교로 보내셨다. 이것은 궁극적인 기원에 대한 나의 전체적인 접근법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고 하나님은 “창세기 대홍수: 지형학적 범위, 지질학적 영향, 그리고 연대기적 배경에 대한 조사”(Winona Lake, IN: Grace Theological Seminary, 1957)라는 제목이 붙은 450쪽 분량의 박사학위논문을 쓰는데 4년 동안 보내도록 자극하셨다. 곧, 그는 창세기 대홍수의 공동 집필에 동의했다. 그와 나는 둘 다 과학적 및 신학적으로 엄청난 이슈를 다루는 그러한 규모의 프로젝트에는 신학자뿐만 아니라 과학자의 관점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했다.

이처럼 엄청나게 시간이 소모되는 과정 속에서, 21명의 과학자, 9명의 신학자, 그리고 2명의 문법학자에게 원고의 일부나 전체를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회고해보니, 1959년은 또한 시카고에서 혁신리 경과 다른 무신론적 진화론자들이 창조론은 본질적으로 죽었다고 발표한 다윈 100주년 기념의 해이었기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이 ‘묘지에서의 장례식(graveside service)’은 미숙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창세기 대홍수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들 (Negative Responses to The Genesis Flood)

1980년대 말, 우리의 책이 출판되고 약 25년 후에, 두 개의 심각한 반운동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들 운동의 둘 다 자연주의적 다윈주의에 반대했으나, 동시에 성경적이고 과학적인 창조론에도 반대했다.

성경적 관점으로부터, 이것은 슬프게도 예상된 일이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러한 말로 맞섰다. “하기야 여러분 가운데서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환히 드러나려면, 여러분 가운데 파당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고린도전서 11:19, 표준새번역). 한편으로 이것은 건전한 과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상대방이 얼마나 뛰어나거나 웅변적이든지 간에 단지 인간적 권위를 지닌 인물이라는 이유로, 아무 관점이나 수용해서는 안 된다. 우리 각자는 이러한 것들이 그런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사도행전 17:11). 또 다른 한편으로, 많은 수의 크리스천들이 성경적 진리를 버리도록 속임을 당해왔다.

점진적 창조론 (Progressive Creationism)

이 운동의 첫 번째는 특히 크리스천 천문학자인 휴 로스 박사에 의해 대표되는 ‘점진적 창조론’이라고 불리는 것이다. 그는 창조가 소위 ‘빅뱅’이라고 하는 사건으로 수십억 년 전에 시작되었고 동물들은 초자연적으로 주기적으로 수백만 년에 걸쳐 (진화가 아니라) 창조되었으며, 하나님에 대한 아담의 반역이 동물계에 죽음을 야기하지 않았으며, 대홍수의 범위는 지역적이었다고 믿는다. 그는 성경의 66권의 책은 전적으로 영감에 의한 것임을 믿지만 67번째 책, 즉 현대과학이라는 관점에서 재해석될 필요가 있다고 믿는다. (The first of these movements is called "progressive creationism," represented especially by Dr. Hugh Ross, a Christian astronomer. He believes that creation began many billions of years ago with a so-called "big bang"; that animals were supernaturally and periodically created (not evolved) through millions of years; that Adam's rebellion against God did not cause death in the animal kingdom; and that **the Flood was local in extent**. He believes that **the Bible's 66 books are fully inspired, but need to be reinterpreted in the light of a 67th book, namely modern science.**)

2003년 1월에, 미국창조과학회는 ‘점진적 창조론’의 도전에 대해 심도 있게 응했다. 나는 로스 박사의 관점에 대한 8명의 위원단의 토론과 대답에 참석하기 위해서 3명의 과학자와 1명의 신학자와 합류하도록 초청받았다. (에텐 이후: 창조, 저주, 그리고 십자가에 대한 이해.) 나는 특히 ‘점진적 창조론자들’이 인류의 창조 전에 수백만 년의 퇴적과 화석화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창세기 대홍수를 메소포타미아지역의 격변 정도로 축소하려는 헛된 노력에 놀랐다.

지적설계운동 (The Intelligent Design Movement)

두 번째 반운동은 보기에 더 훨씬 더 놀랍다. 이것은 ‘지적설계운동(IDM)’으로 불리며 무신론적 자연주의와 신다윈주의적 진화론이 생명체의 환원불가능한 복잡성(irreducible complexity)을 설명하는데 완전히 실패했다는 제안에 헌신적이다. 지적설계 학자들은 또한 진화론이 성경이나 세계의 창조주이신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호소 없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논쟁에 의해 패배될 수 있다고 믿는다.

모든 크리스천은 궁극적 기원에 대한 연구의 건전성과 실재성을 회복하려는 합리적인 노력에 성원을 보내야 할 것이다. 이 정도까지는 대부분의 지적설계운동의 증대가 적확하다. 하지만, 이 운동의 비극은 하나님께서 기원에 관해 계시를 주신 성경을 고의적으로 존경하기까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사실상, 문자적 역사로서의 창세기는 진화론적 경향의 과학자들과의 논쟁에서 짊어져야 할 당황스러움이나 원치 않는 불필요한 짐인 것처럼 보인다.

지적설계운동의 주된 대변인인 필립 존슨(Philip Johnson) 박사는 다음과 같이 조언한다. “소위 성경과 과학이라는 이분법을 제기하기를 원치 않으므로 논쟁에서 성경과 창세기는 빠라. 세속적 학회에서 들려질 수 있는 그러한 방식과 종교적 반대자들을 통합할 수 있는 방식으로 논쟁을 표현하라. 그것은 ‘창조를 하는데 조물주가 필요한가, 아니면 자연이 스스로 그것을 할 수 있는가?’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다른 문제들로 벗어나는 것을 거절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은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혹은 그러한 것과 같은 것을 물을 것이다. 그것들은 여러분을 길이 없는 불모지로 이끌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질문에 결코 곰곰이 생각하지 말라”(“Berkeley’s Radical” in Touchstone 15:5 [June, 2002], p. 41).

사실상, 천지만물이 지적설계자의 산물이라는 것을 평가하는 것은 기원 연구에 있어서 필수적인 기초이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완전한 창조 진리로 이끄는 사다리의 맨 밑 단일뿐이다. 그것은 너무나 불충분하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이처럼 엄청나게 중요한 질문에 참된 관점을 이끌어오기 위해서는, 창세기 1장과 2장 내의 기원에 관한 성령의 영감을 받은 설명과 창세기 6-9장 내의 대홍수 규모에 대한 하나님의 기록도 또한 믿어야만 한다. 참된 크리스천들은 만물, 즉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골로새서 1:16),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 그분(골로새서 2:3), 모든 생명과 물질, 에너지, 공간 그리고 시간의 궁극적 설계자가 ‘지적설계’에 대해서 너무나 웅변적으로 쓰고 있는 이들에 의해서 실제로 무시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크게 놀라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기원에 대한 창세기의 기록을 믿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겸허히 강조한다. 이것은 명백히 생명체가 창조된 방식(‘성숙한’ ; “full-grown,” with a superficial appearance of history)과 물질이 창조된 순서, 그리고 창조 사건의 기간(단지 수천 년 전에 하루 24시간인 6일)을 포함한다. 우리의 주님은 아담과 이브가 지구가 나타난 후 수백만 년 후가 아니라 ‘처음부터’ 창조되었다고 설명하셨다(마태복음 19:4). 따라서, 동물계 내의 죽음은 인류의 창조 전에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아담의 불순종의 결과임을 믿는 것 또한 필수적이다(창세기 1:31; 로마서 8:20-23에 비추어 로마서 5:12). 매우 드문 예외를 제외한 전 세계에 걸친 무수한 화석화된 동식물은 단지 창세기 대홍수라는 전 지구적인 격변에 의해서만 설명될 수 있다.

오늘날 창조/진화 논쟁에서는, 슬프게도 무시되어, 한 영혼의 영생을 잃도록 이끌 수도 있는 정말로 깜짝 놀랄 요소가 있다. 우리의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Whosoever shall be ashamed of me and of my words, of Him shall the Son of man be ashamed, when He shall come in His own glory)”(누가복음 9:26). 만약 우리가 토론에서 그리스도를 빼버린다면, 물질주의적 진화론의 어둠 속을 걷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진실로 도울 수 있겠는가?

지적설계에 관한 토론과 논쟁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시적으로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끌어당길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한다. 그러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단지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을 받아들임(히브리서 4:12)과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완수된 사역과 죽은 자 가운데 육신이 부활하심에 대한 증거(참고 로마서 10:9-10)로써만 나타날 수 있다. 사도 바울이 팔스 언덕(Mars Hill)에서 아테네의 철학자들에게 지적설계에 대한 강력한 제시를 참된 살아계신 창조의 하나님이 이제 모든 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신다(사도행전 17:16-18)고 강력히 주장함으로써 끝낸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다시 살리심으로써 모든 이들에게 이것에 대한 확신을 주었다(30-31절). 그가 이 연설에서 주 예수를 경외했기 때문에 몇몇 사람이 그에게 합류하여 믿었다(34절). 다른 경우에, 바울은 다음과 같이 썼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로마서 1:16).

그렇다면, 현대의 지적 설계 지지자들이 답해야만 하는 화급을 요하는 질문이 있다. 사람들이 그들의 메시지를 들은 결과, 그리스도를 주님과 구주로 믿어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충분히 새롭게 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가?

우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 구원을 이루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로마서 10:9,17, 개역한글). 이것이 진화론자들을 죄에 대한 무지함으로부터 분리하고 그들을 세계의 창조주이자 인간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지식으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썰기’이다.

그러므로, 휴 로스 박사와 그의 추종자들이 산을 덮고 1년간 지속된 노아 시대의 대홍수를 메소포타미아의 지역적 홍수로 줄이려고 시도하는 한편, 지적 설계 과학자들과 철학자들은 공식적으로 대홍수에 대한 창세기의 기록뿐만 아니라 창세기 전체와 그 뒤의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65권의 책도 또한 무시한다.

결론 (Conclusion)

참으로, 세상의 하나님 백성은 세상의 기원에 관하여 커다란 결정을 내려야만 한다. 그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자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는 하나님이니므로 그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우리의 마음을 그 어느 때보다 훨씬 더 커다랗게 말하고 있는 유한하며 죄 많은 사람의 항상 변하는 의견에 굴복할 것인지를.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오랜 옛날부터 있었고,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말미암아 형성되었다는 것과, 또 물로 그 때 세계가 홍수에 잠겨 망하여 버렸다는 사실을, 그들이 일부러 무시하기 때문입니다”(베드로후서 3:5-6, 표준새번역).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확인해 주셨다.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휩쓸어가기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다.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마태복음 24:38-39). 다음을 생각해 보라. 우리의 주님은 한 사람이 “대홍수가 와서 모든 것들을 휩쓸어갔을 때” ‘방주’에 들어감으로써 ‘대홍수’로부터 살아남았다고 말씀하셨다. 과연 이것이 노아가 살아남기 위해서 어떠한 종류의 방주도 필요하지 않았던 지역적 홍수가 단지 몇몇 사람들을 휩쓸어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을까? 아니면, 일부 과학자 크리스천이 믿는 것처럼 그 당시에 모든 인류가 단지한 지역에 갇혀 있어서 지역적 홍수가 정말로 그들 ‘모두를’ 휩쓸어갔을 수도 있을 것이란 말인가? 그러나 그렇게 도무지 그럴 것 같지 않은 시나리오 속에서조차, ‘방주’가 정말로 필요했을까? (Stop to think: Our Lord said that one man survived "the flood" by entering "the ark" when "the flood came, and took them all away." Could this possibly mean that a regional flood, which did not need any kind of an ark for Noah to survive, took away only some people? Or, as some Christian men of science believe, all mankind in those days was confined to just one region, so that a regional flood could indeed take them "all" away? But even in such a highly unlikely scenario, would an "ark" really be needed?) 심지어 2달의 경고를 받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지역적 홍수를 피할 수는 없었을까? 세상의 모든 새와 포유류와 파충류도 지역적 홍수에 의해 죽게 될 수 있었을까?

결론은 이렇다. 하나님의 아들이 대홍수에 대한 정보의 믿을만한 근원인가? 그가 사람들을 속일 수가 있는가? 그가 다음과 같이 말했을 때 진지했었는가? “그러나 너희가 모세의 글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내 말을 믿겠느냐?”(요한복음 5:47).

이 모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세상의 수천 명의 사람이 성경책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도록 돕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책을 사용하셨다. 대홍수의 심도, 규모, 중요성에 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적 신학, 성서해석학(hermeneutics) 그리고 주해(exegesis)에 대한 커다란 기술이 요구되진 않는다.

결국, 성경적 격변은 유한하고 항상 변하는 인간의 이론이 아니라 성경의 거룩한 계시의 기초 위에 견고하게 서 있다(Biblical catastrophism, in the final analysis, stands firmly upon the foundation of divine revelation in Scripture, not on the finite and ever-changing theories of men).

* Dr. Whitcomb is co-author of The Genesis Flood. This article is an adaptation of a message given at the Answers in Genesis Mega-Conference on July 18, 2005. **참조**

과학과 종교의 만남

많은 사람들은 종교와 과학을 전혀 다른 세계로 생각하고 있으며 종교적 세계와 과학적 세계는 서로 대화할 수 없다거나, 더 심한 경우에는 이들이 서로 모순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다. 나는 화학공학과 교수이자 기독교 신자이어서, 이른바 모순이라는 종교와 과학의 양면세계를 모두 체험하고 사는 사람들 중의 하나이다. 지금 다루려고 하는 이야기의 기초는 수년 전 미국항공우주국의 부국장이었던 미첼 박사가 우리 대학에 와서 강연한 내용이며, 거기에 나의 생각을 보태어 정리한 것이다.

성서에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빛에 비유해서 설명한 구절이 많이 보인다. 특히 요한1서에서는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하여 하나님과 빛을 동일시하고 있다. 물리학에서 빛의 성질과 관련된 부분이 비교적 많은 분야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나는 빛으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속성과 상대성이론이 말하는 빛의 성질을 서로 연결시켜 보려고 하는 것이다.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이론은 우주에 절대기준계가 없다는 생각과 광속불변의 원리에 기초를 두고 있다. 광속은 절대적이며, 우주에서 절대적인 존재는 빛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우주에서 유일한 필연존재로 묘사되는 하나님, 절대존재 하나님과 일치시킬 수 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이다. 이런 가정들을 기초로 하여 유도한 특수상대성이론에는 몇 가지 재미난 결론이 있다. 그 결론의 하나하나와 하나님의 속성을 구체적으로 연결해 보자.

첫째는 **물체의 운동속도에 따른 길이의 변화**이다. 물체는 운동속도가 빨라지면 운동하는 방향의 길이가 점점 짧아져서 운동속도가 광속에 이르면 마침내 그 길이가 0이 되어 버린다. 사람이 광속으로 달린다고 하면 배꼽과 등이 한 평면이 되어 종잇장처럼 납작해진다는 결론이다. 하나님은 빛이므로 광속으로 운동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당연히 그 길이가 0으로 축소되어 있으므로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게 된다.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이 영체라서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과 일치한다.

둘째는 **시간에 관한 문제**이다. 운동속도가 빨라지면 시간은 점점 느리게 간다. 그래서 운동속도가 광속이 되면 시간은 아주 멈추게 된다. 즉 시간이 무한대로 걸린다. 그래서 인간차원에서는 유한인 시간이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무한대가 되며, 태초부터 영원까지 변함없는, 시간 초월의 영원존재 하나님과 일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아서 시간의 길고 짧음이 없으며,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먼저 있다는 예수의 말씀도 수궁이 간다.

셋째는 **질량에 관한 것**이다. 운동속도가 점점 빨라지면 질량은 차츰 증가하게 되며, 운동속도가 광속에 이르면 질량은 무한대로 커진다. 하나님은 무한한 존재이다. 질량뿐만 아니라 그 능력이나 지혜나 사랑이나, 모든 면에서 무한한 존재이다. 무한한 하나님은 광속으로 운동하는 물체의 질량이 무한대가 된다는 사실과 유추할 수 있는 것이다.

넷째는 **속도의 상한에 대한 것**이다. 우주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의 속도는 광속이다. 방정식에 의하면 광속에 광속을 더해도 그 답은 광속에 지나지 않는다. 수년 전부터 빛보다 빠른 입자에 대한 연구논문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이들은 그 실상을 체험할 수 없는 허입자(imaginary particle)에 불과하므로 실재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실은 인간이 어떠한 방법을 써서도 하나님을 따라잡거나 능가할 수는 없다는 사실과 유추할 수 있다. 옛날 구약시대에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에서 비롯하여 하나님을 부정하는 여러 모양의 현대인에 이르기까지 인간 스스로 하나님에 접근하기 위한 수많은 도전이 있었으나, 그들이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던 것은 속도의 상한선이 광속을 넘을 수 없다는 사실과 잘 일치하는 것이다. 빛의 굴절현상에 대해 공부한 사람은 누구나 빛은 시간이 가장 적게 걸리는 경로를 따라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렌즈를 통과할 때 빛이 꺾여서 진행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시간이 가장 작게 걸리는 경로를 찾을 줄 아는 빛의 ‘지혜’는 이른바 지능지수(I. Q.) 얼마라고 해야 표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지능을 숫자로 표시할 방법이 있을는지 의문이다.

일반상대성이론에서는 우주의 크기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우주의 크기를 말할 때 도무지 어디까지가 우주냐고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 물질이 존재할 수 있는 곳까지가 우주라고 쉽게 대답하겠지만, 물질 중에서 가장 멀리까지 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고 다시 묻게 되며, 결국은 질량-에너지(mass-energy)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빛이 도달하는 공간까지가 우주라고 결론을 내리게 된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편재성을 설명하는 것이 된다. 하나님은 우주의 어느 곳이나 항상 존재한다는 것이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기로 하자. 이것은 삼위일체설에 대한 것이다. 셋이면 셋이지 셋이 어찌 하나가 될 수 있느냐고, 아예 삼위일체설을 부정해 버리는 기독교회 교파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삼위일체설은 분명히 증명할 수가 있다. 유한존재에서는 셋이 하나일 수가 없다. 그러나 무한존재인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가능하다. 수학에서 집합개념을 빌어오자. 자연수의 집합, 홀수의 집합과 짝수의 집합은 모두 무한집합이면서도 이 셋을 다 합치면 자연수의 집합, 즉 동등한 자격의 하나의 집합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를테면, 성부는 자연수의 집합, 성자는 홀수의 집합, 그리고 성령은 짝수의 집합으로 대표시키면 그 각각이 무한집합이면서 모두 합쳐도 자연수라는 하나의 동등한 무한집합으로 되지 않는가? 우주생성의 기본으로 창세기에 등장한 빛은 성서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속성을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는 물리적 존재(우주의 일부분)이다.

그러나 사랑으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성격을 물리적으로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은 현재의 나에게 솔직한 고백이다. 그러면서도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원리를 빌어, **인간차원의 어떠한 방법을 써서도 도무지 파낼 수 없는 무궁무진한 진리가 존재한다는 것만은 확실히 밝혀둔다.** 하나님은 분명히 인간차원 그 너머에 계시는 초월의 존재이니까.

(계명춘추, 1980. 11. 25) **창조**



성경 대단해요!

이번 호에서는 수천 년 전에 씌어진 성경이 얼마나 현대적이고 미래적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이 성경 속에 쓰여 있지요. 그뿐 아니라 그 당시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놀라운 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과학주의 시대의 우리들로서도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과학을 통해서 조금 이해하고 보니 성경이 정말 대단하구나 하고 이해하게 된 것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성경에 **손전화(Hand Phone; mobile phone)**를 언급하고 있을까요? 성경에 전화라든가 통신에 관한 말을 언급하고 있을까요? 답은 Yes입니다.

함께 찾아볼까요? **욥기 38장 35절**에 보시면 "**네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그것으로 네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번개는 전기 통신 같은 것을 뜻합니다. 한자 '電'자도 '번개 전'자죠. 당시 봉화불이나 흔들던 시절에 하나님께서 휴대폰에 대해 이야기를 했으니,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후 수천 년이 지나 1800년대 중반에 미국의 과학자이며 유명한 화가이며 독실한 기독교인인 모르스가 전신기를 발명하고 모르스 부호를 발명해 가지고 전기를 통해서 정보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저기 있나이다" 하고 전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동전만 있으면 공중전화로 "설악산에 있나이다. 자고 가니 걱정하지 마사이다" 등을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것도 귀찮아서 휴대폰으로 길을 걸어가면서도 '이러쿵 저러쿵' 말이 많지요. (예전에는 길가다가 혼자 중얼거리다가는 정신이상자라고 놀림을 받는 시대도 있었죠? 이어폰 끼고 핸드폰으로 전화하면 딱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너무 일찍 욥에게 가르쳐 주셔서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이와 같이 최첨단의 과학 앞에는 성경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운석**은 언급하고 있을까요? 혜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혜성이 아마 헬리 혜성일겁니다. 그 혜성이 날아가다가 작은 돌들이 지구, 달 등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우주에서 날아와서 떨어진 돌을 운석(meteorite)이라고 합니다.

운석의 존재가 과학적으로 확실하게 증명된 것을 1803년의 일입니다. 이 돌이 보통 돌이 아니고 우주에서 날아온 것이다 하는 것을 밝혀낸 것이 불과 200년 전이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부터 3300년 정도 이전에 기록된 **여호수아서 10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악한 아모리 족속을 멸하시며 특수한 방법을 쓰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덩이우박을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게 하시매...(the LORD cast down great stones from heaven upon them unto Azekah, and they died)"**

안타깝게도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에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중국어 성경이나 이런 것을 보면서 번역을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덩이우박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실제로 영어성경에 보시면 great stone(거대한 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박'이 아니라 거대한 '바윗돌'이 떨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더욱 더 분명한 사실은 성경의 원전인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하늘에서 '에벤'을 떨어뜨려 멸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에벤'은 '바위' 혹은 '돌'을 뜻합니다. **히브리어에 우박은 '에벤'을 쓰지 않고 '바라드'라는 말을 씁니다.** '우박'과 '돌'은 히브리어로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데 한국의 번역가들이 "하늘에서 떨어졌으면 우박 말고 뭐 있겠냐" 하고 오해하여 잘못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관찰한 것은 불과 200년 전이지만 성경에는 이미 수천 년 전에 운석의 존재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지만 과학에 관한 엄청난 사실들을 많이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그 피조물에 관해서 기록하셨으니 당연히 가장 정확한 기록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딤후 3장 16-17절, 개역한글판)

* 창조퀴즈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덩이우박을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게 하시매..."**. 중에서 큰 덩이 우박은 거대한 돌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히브리어 원어성경에는 이 거대한 돌을 어떤 단어로 표현하고 있을까요? **참조**

본 전자소식지를 계속해서 받아 보기 원하시면, 저희 창조과학회 대구지부 홈페이지(creation21.org)를 방문하셔서 **회원가입(무료)**하시고, 가입하실 때 반드시 **E-mail 주소를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요청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홈페이지에서 이메일 부분을 누르시고, 요청사항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달마다 더욱 좋아지는 소식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